

반려동물 추모공원 생긴다

임실, 농식품부 공모 공공동물장묘시설 유치 확정... 2년간 50억원 투입

오수의견 설화로 유명한 임실군이 반려동물의 마지막 안식처인 공공동물장묘시설 유치에 성공하면서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실군은 반려동물 테마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8년도 공모 사업으로 전국 2개소를 선정하는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임실군이 선정된 것.

반려동물 추모공원인 공공동물장묘 시설은 오수면 금압리 군유지 8,680㎡ 부지에 조성되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시설은 수목장지, 장례식장, 야외봉안당 등이다. 이 시설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공성을 띠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사후 처리를 친환경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품격있는 사후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공공동물 장묘시설이 완공되면 임실군은 의견의 고장 오수면을 전곡을 대표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집적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임실군은 반려동물 테마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오수의견관광지에는 수견육종 연구소와 반려동물놀이터, 카리반캠핑장 등 기반시설이 들어선 상태이다.

군은 여기에 갤러리하우스와 산책정원 등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도립 반려동물교육보호센터를 유치하여 반려동물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특히 군은 민선 7기 핵심정책 중 하나로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 육성사업을 앞세워 오수의견 관광지를 대한

민국 최고의 반려동물 테마공원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심 민 군수는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7기에는 오수의견의 역사적 스토리를 잘 살려내어 오수를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육성호와 성수산,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해 연간 500만 관광객대를 열어나가는 핵심 요충지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민선7기 남원시정 변화해야”

한명숙 의원 5분발언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을 보 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관변·협력단체가 많이 있어

남원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한명숙(사진)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민선7기 남원시정에서 변화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남원시 행정조직과 인사정책에 대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는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일의 능률과 효율을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이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큰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승진인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사정책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시 현안 주요사업을 적시적기에 유연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TF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 역점사업인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TF팀 운영을 적극 검토했으면

연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잃고 정체성과 명분을 상실한 채 일부 대표들의 감투를 위한 단체로 전락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의사결정 구조가 폐쇄적이고 조직운영이 비정상적인 경우도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몇몇 단체는 이미 정체성과 명분을 상실, 조직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장기간 독선적인 권력으로 시민여론을 묵살한 채 운영되어온 관변단체에 철저한 자기반성과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하며, 목적과 기능에 맞게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시민 행복민원센터 문 활짝

남원시가 민원실 내 편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인 시민 행복민원센터를 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시에 알맞게 접목시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행복민원 센터를 조성했다.

남원시가 개방한 행복민원센터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도 상반기에 민원인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과, 전자정보사무기기 및 건강체크 등 시민편의시설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연령대별 다양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도서목록대 등 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할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민원인 대기시간을 기다리는 등 틈새시간에 자연스러운 책임가가 가능한 작은 책방도 조성하였으며, 사랑의 남원을 상징하는 하트모양으로 칸막이를 만든 것은 민원과 전 직원들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창의적인 색깔과 디자인을 발굴하게 되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은 민원실 직원들에게 "시민중심의 가장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람 잡는 폭염에 고강도 대책 '풀 가동'

황숙주 순창군수 특별지시, 취약계층 돌봄·농지 고갈현상 따른 장비 임차 추진

순창군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대책마련에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군은 무더위 쉼터 설치, 독거노인 특별 관리, 가뭄대책 등 폭염 장기화에 따른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7일 낮 최고 기온이 38.2도를 기록하는 등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19일째 순창군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황숙주 군수의 특별 지시로 각 실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진행되는 고강도 대책이다.

군은 우선 27일 관련실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해 추진 현황과 앞으로 대책을 집중 점검 논의했다.

군은 우선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 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읍내 도로를 중심으로 5개노선 4.8km에 대한 살수 작업에 들어갔다.

또 현재 15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에 대한 건부공무원 종합 행정담당 읍·면 전담제를 실시하여 현장 출장을 통해 무더위 쉼터의 운영상황 점검과 폭염대응 행동요령에 대해 홍보하기로 했다.

또 순창군이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해 8월 27일까지 공사 일시정지를 통보해 폭염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난도우미 및 자율방재단 360여명과 의료원 직원들이 나서 안부전화 실시가 가호호 방문 온열질환 예방 홍보 활동 및 건강체크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황 군수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일부 면지역 전·담 고갈 현상에 따른 장비 임차 지원 검토도 지시한 상황이다. 황군수와 관계공무원은 지난 주말에도 폭염 피해상황 및 대책마련을 위해 현황을 방문하는 등 폭염피해



최소화에 구슬땀을 흘렸다.

황 군수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취급 해야 할 단계까지 와 있다"면서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사고 예방은 물론 농업에 끼치는 피해 대처까지 폭염에 대한 다각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전국 당뇨 치유 1번지 급부상

순창군이 '2018년 호남권 당뇨캠프'를 성공리에 개최해 전국적 당뇨치유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군은 지난 28일에서 29일까지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서 전문당뇨 교육팀과당뇨 환우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호남권 당뇨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호남권 당뇨캠프는 의료·간호·약제·치과·영양·운동·사회복지 분과 등 분과별 전문 당뇨 교육팀과 당뇨환우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당뇨관련 행사로 순창군이 주최하고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주관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전국 당뇨환자들이 참여하는 전국당뇨 캠프도 순창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당뇨 치유 1번지 순창의 브랜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당뇨캠프는 당뇨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당뇨에 대한 최신 이론과 체험, 감진,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 당뇨치유법을 익히고 당뇨관리의 실천의지를 고취하는 대규모 행사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당뇨치유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용 한다는 점에서 당뇨환우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행사다.

첫날인 지난 28일에는 참여 의료진과 당뇨 환우들이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캠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당뇨 관련 의료분과, 영양분과, 약제분과 강의 및 혈당측정, 인바디검사, 발관리에 대한 전문 강사진의 강의도 진행됐다. 저녁 시간에는 작은 음악회 및 촛불의식을 통해 당뇨에 대한 체험과 극복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져 당뇨 환우들의 용기를 북돋았다.

또한 저 나트륨 식단제공 및 당뇨식 요리실습을 통해 교육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이 바로잡힐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해 만족도를 높였다.

둘째날 의료진과의 1:1 상담시간을 통해 개인별 당뇨 상태와 극복 방법을 찾는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퀴즈 왕중왕 시간을 가져 당뇨에 대해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짚어주는 시간도 진행됐다. 마지막에는 당뇨 환우들의 캠프 체험 후기와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돼 앞으로 당뇨 극복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는 시간으로 이번 캠프는 마무리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총력

남원시가 상·하수도요금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촉구 공문 발송 및 직접 방문을 통한 납부촉구를 실시해 왔으나, 6월말 기준 체납액이 1억1천6백만원으로 그중 31%에 해당하는 32세대(4천8백만원)가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인 고질·고액체납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30일 총 9백만원에 달하는 고질·고액 체납 17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로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질적 장기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경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